



ERZBISTUM
HAMBURG

사목서한 2021

발표 날짜 : 2월 3일 성 안스카 축
일; 공동체에 선포 : 연중 제5주일
(2월 6일 - 2월 7일)



사목서한 2021

발표 날짜 : 2월 3일 성 안스카 축일;
공동체에 선포 : 연중 제5주일
(2월 6일 - 2월 7일)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벌써 일 년 이상 동안 우리의 삶을 거세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만 -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의 뚜렷한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들이 매우 다르다 하여도 그것은 매우 뚜렷하고 근본적인 변화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팬데믹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저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단순 명료화시켰으며 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시간 약속, 사목방문, 대화 들, 축일들, 기념일들, 성지순례 등 - 그 모든 것들을 개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 히 몇몇 회의들도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주교 봉사직 거의 모두를 주교관 안에서 혹은 주교관에서부터 수행해야 했으며 많은 부분을 디지털 방식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가정들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 특히 두 배, 혹은 세 배의 도전을 받고 있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 저는 지금 건강함에 있어서 극한까지 도달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 나 바이러스 때문에 피곤해졌고 오래 달리기를 한 사람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처럼 이 문제는 우리를 존재적인 도전들 앞 에 놓아둡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에게 보다 진지한 성찰 을 하도록 이끌고 우리가 미처

제대로 모르고 있던 새로움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에 관한 질문들 앞에 서 있는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자신의 일을 - 그게 자영업이든 회사이든 -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무엇으로 살 수 있을지 혹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도 일이 없거나 수입이 없기도 합니다.

존재라는 단어를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단어로부터 파생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무엇을 나는 짊어지고 있는가?”, “무엇이 지금 바로 나로 하여금 의미와 행동으로 이끄는가?” 매일매일 독일에 살고 있는 수백의 아니 수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죽고 있다면 혹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쟁투하고 있다면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보다 강하게 저의 근본적인 뿌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천이란 신앙의 뿌리, 제 삶의 뿌리입니다. 가장 깊은 뿌리는 하느님이십니다. 생각 지도 못하게 저에게 영국의 추기경님이었던 존 헨리 뉴먼(1801-1890) 기도 하나가 제 손 안에 잡혔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하느님이며 구원자이신 분, 저와 함께 머무소서! 당신을 떠나면 저는 색이 바래지고 황폐화될 것입니다. 당신을 저에게 다시 보여 주소서, 저는 다시 새 삶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께 의탁할 뿐입니다: 저와 함께 머무소서, 곧 저녁이 되리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이러한 뿌리들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하고 성찰하는 많은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매일의 성경 묵상, 미사 거행, 기도, 무엇보다도 반복된 묵주기도들은 저를 새로운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이끄신다는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편이십니다. - 물론 아프거나 죽을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우리들의 기대와 희망 모두를 채워주시는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위기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삶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계획할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또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원천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선하신 손 안에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께!

저는 코로나 시기에 제 삶이 이전에는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짜여진 계획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추월선에서 있는 삶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점차 저에게 건강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제 삶에서 브레이크를 밟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다시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해 페달을 밟으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다시 속력을 내는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자주 아픈 세계 안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종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계, 치유 받고 있는 인류에 대한 말씀 이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특별히 정치와 경제가 치유를 향한 그들의 기여에 노력하도록 호소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도인으로써 공저긴 삶에 참여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난민들을 위한 저의 노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무엇보다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찾아갈 때 우리 미래에 결 정적인 해결책과 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혼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계서는 2007년 당신의 교서 “Spe salvi” (희망으로 구원됩니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 안에서 서로 이어 져 있습니다. 누구도 홀로 살지 못합니다. 누구도 홀로 죄 짓지 못합니다. 누구도 홀로 구원 받지 못합니다. 저의 삶 안에 늘 다른 사람의 삶이 끼어듭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영향을 주든지. ... 우리의 희망은 늘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 한 희망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써 단순히 질문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스스로 나를 구할 것인가? 그렇 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희망의 별이 떠오를 수 있도록 나 는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런 연후에야 나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한 것이 될 것입니다.”(Nr. 48)

코로나는 저의 눈을 뜨게 했고 이와 관련하여 행동으로 이끌게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들입니다. 삶은 관계가 풍요로워지는 거기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 까닭에 코로나는 우리의 직접적인 만남들과 접촉들과 관계들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에게 디지털 미디어의 장을 열게 한 새로운 형태는 개인적인 만남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좋은 선택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을 맞잡으며 사람들이 접촉하거나 눈과 눈이 만나는 시선이 마주치거나 포옹을 하는 일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슴 아프게 그리워했습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의 몸이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몸은 우리의 삶을 짊어집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첫 장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인 것은 좋지 않다.”(창세 2,18) 아마도 이러한 신체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리를 아련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 역시 결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모일 수 있고 우리의 미사들 안에서 특히 주일미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에 봉헌하는 미사 성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식이며 교회와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유배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로써 각각의 “양”을 찾아나서야 하고 많은 것을 새롭게 일으켜 세웁니다(세워야 합니다). 어쩌면 거기에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각양각색의 봉사와 활동에 대해서 매우 기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신 의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가치 있고 긍정적인 교회의 경험들을 모으는 우리 공동체의 수많은 형제자매님들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21년을 가정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편이 되어주는 강한 결속력, 무엇보다

약 한 이들의 편이 되어주는. 우리가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바로 거기에 교회의 성장을 향한 질문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신자여러분!

두려움에 저항하는 우리의 신뢰, 헛됨을 이겨내는 우리의 희망, 거리를 극복하는 결, 모든 허무를 끊어내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모든 비관적인 시선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이끄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에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서로 밀쳐내지 말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척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 안에서 더 큰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특별히 우리와 연결된 모든 이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주교는 모든 축복의 원의를 담아 여러분 곁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대주교 스테파노



ERZBISTUM
HAMBURG

Erzbistum Hamburg
Am Mariendom 4
20099 Hamburg
www.erzbistum-hamburg.de